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4.30원 상승한 1,269.90원에 마감

20일 환율은 전일대비 4.30원 상승한 1,269.9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90원 상승한 1,267.50원에 개장했다. 상승 출발한 환율은 중국인민은행의 LP R 동결, 위안화 절상고시에 따른 위안화 강세에 연동되어 장중 하락 전환했다. 오후 장 초반 환율은 저가 매수세에 하락이 제한되며 대체로 보합권에서 머물다가 달러인덱스 상승의 영향으로 오름세로 전환하여 1,269.90원에 마감했다. 장중 변동 폭은 8.3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09.86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267.50	1270.40	1262.10	1269.90	1265.8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906.47	911.08	904.58	904.78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417.15	1424.73	1411.75	1413.23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69	-4.97	-12.78	-27.61
결제환율(수입)	-0.3	-3.85	-11.09	-24.57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강달러와 위험선호 위축에...1,270원 후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0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269.90) 대비 8.65원 상승한 1,276.5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美 고용시장 개선에 따른 강달러와 위험선호 위축 영향에 상승이 예상된다.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2.8만 명으로 예상(24.0만 명)을 하회했다. 이에 미국 2년, 10년 국채금리는 각각 8.55bp, 10.11bp 상승했고 달러인덱스는 전장대비 0.55% 상승한 100.831을 기록했다. 견고한 고용시장 여건에 따른 강달러와 7월 FOMC 금리인상 가능성은 금일 환율 상승 분위기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기술주 실적 악화에 나스닥지수가 2.05% 하락하는 등 위험선호 심리가 위축된 점도 금일 환율 상승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월말 수출업체 네고, 위안화 강세 등은 상단을 경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272.40 ~ 1283.2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652.34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8.65원 ↑
	■ 美 다우지수 : 35225.18, +163.97p(+0.47%)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92.64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398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